

광주 휘발유값 석달만에 1600원대

6주연속 하락 ... 전남지역도 9주만에 1600원대로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6주 연속 떨어지면서 석달만에 다시 1600원대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주 광주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평균가격은 1당 1696.3원으로 전주보다

다 8.8원 하락했다.

4월 넷째주 1731.4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두달 사이 35.0원이 내린 것이다.

자동차용 경우 5월 첫째주 1518.3원에서 5주 연속 하락해 1492.4원을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6월 둘째주 휘발유 평

균 가격이 7.2원 하락한 1699.0원으로 9주만에 1600원대를 회복했다. 자동차용 경우도 전주보다 5.9원이 떨어져 6월 둘째주 1493.1원을 기록했다.

보통휘발유의 전국 주유소 판매 평균가격은 1당 1,710.2원으로 전주와 비교해 4.6원 하락했다. 자동차용 경

유도 3.5원 떨어진 1당 1,503.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무연 보통휘발유의 경우 서울 평균 가격이 1당 1,765.4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689.8원으로 가장 낮았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유럽재정 위기의 여파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국내 유가도 당분간 소폭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6·25 참전국 유학생 지원 롯데백화점 평화 대바자

롯데백화점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15~20일 광주점을 비롯한 전 점포에서 참전국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과 평화의 대(大)바자' 행사를 연다.

전국여교수연합회(회장 박남희)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롯데백화점은 의류, 잡화, 식품, 생활용품 등 20만 점을 20~7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수익금 등으로 1억6000만원을 조성해 참전국 출신 유학생 100여 명을 도울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개청 30돌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이 14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본부세관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기념식에서 "서남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세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1980년 6월14일 목포세관 광주출장소에서 승격, 개청해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이 14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본부세관에서 열린 개청 30주년 기념식에서 "서남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세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1980년 6월14일 목포세관 광주출장소에서 승격, 개청해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매년 7월 중소기업 신용평가 채권은행 구조조정 추진

채권은행들은 매년 7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부실장기기업에 대해 기업회생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은행권 공동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매년 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대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을 해야 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이뤄진다.

수시평가는 5월, 8월, 11월, 2월 말 등에 이뤄지며 평가 대상은 매 분기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연합뉴스

광주 탄소배출권 모의 거래

오늘부터 3일간 실시 29개 공공기관 참여

광주시가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15일부터 3일간 탄소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거래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광주교유청·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2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이버상에서 2010년도 1·4분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모의거래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관이 배출권 여유분을 다른 기관에 팔 수 있고, 감축하지 못한 기관은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환경부는 2013년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분기별로 모의거래를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9개 참여기관의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해 연 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등을 이산화탄소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기업체 등에 전파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대차 2011년형 모델 출시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2011년형 모델(사진 위)과 그랜저 탄생 24주년 기념모델을 15일부터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형 쏘나타는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 적용으로 2.0 가솔린 모델의 연비를 13.0km/ℓ로 높였다. 그랜저 모델은 고급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했다. <현대차 제공>

“우리사주조합·주식투자자 지원 강화”

강승원 한국증권금융 광주지점장



“광주·전남지역 우리사주 조합을 활성화하고 주식투자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승원 한국증권금융 광주지점장은 14일 “광주·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우리사주 조합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식을 토대로 한 금융지원 수혜자들도 많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강 지점장은 “우리사주 전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 광주지점과 우리사주 조합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1개사에 불과하고 주식을 예탁한 업체도 13개사 뿐”이라며 “우리사주는 조합원들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경영진들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기업의 경우 언제든지 한국증권금융에서 유가증권(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지원이 가능해 급히 현금이 필요할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저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은 최대 150억원, 법인은 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강 지점장은 이어 “한국증권금융에서 취급하는 주식담보대출은 금융권과 달리 중도상환해도 추가이자나 수수료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195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주식회사로, 우리사주

조합의 설립·운영 컨설팅, 우리사주 주식예탁관리, 우리사주 취득자금지원, 법인·개인투자자에 대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공적업무 수행하는 기관이다. 증권사 부실운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고객예탁금을 전담관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키워드 경제 주식투자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

기업은 갖고 있는 자본금만큼 주식을 공개시장(증권시장)에 팔아서 경영자금을 조달한다. 자본금이 5000만원인 주식회사가 주식 1주당 가격을 5000원으로 정한다면, 5000원짜리 주식 1만주를 발행하는 식이다. 주식 보유자는 보유지분만큼 그 기업을 소유하는 셈이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려면 기업공개 등 상장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이 발행했거나, 신규 발행할 주식 전부를 증권시장에 내놓기 위한 법절차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가 주식상장 허가·시장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주식은 기업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특정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100만주를 발행했다면, 주식 1주당 그 회사 이익 중 100만분의 1의 지분을 보장해줄 뿐 아니라, 기업청산시 부채를 뺀 잔여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다.

투자자는 회사가 경영을 잘하면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증권시장 거래를 통해 차익도 챙길 수 있다.

주식가격은 상품의 가격처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주식거래는 반드시 중개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투자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을 거래하고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탈세 제보·연말정산 등 세무상담은 전화 126번

오늘부터 통합 운영

15일부터 세금 관련 상담, 탈세 등 각종 제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모든 세무관련 대표전화화 '126번'으로 통합돼 납세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시내통화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11일 개통한 대표 상담 전화인 '126 세미러 콜센터' 이용률이 이달 첫째주 기준으로 90.5%(전체 478만6000건 중 433만2000건)를 기록함에 따라 그동안 일시적으로 병행운영하던 기존 분야별 상담전화를 폐지하고

15일부터는 126번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126번” 안내체계는 1번 세법상담(고객만족센터), 2번 현금영수증, 3번 전자세금계산서, 4번 홈택스, 5번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연결, 6번 탈세 등 각종 제보, 7번 연말정산간소화 등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www.kjhe.com

국제보청기

*우수기업입니다

*전문입니다

*가격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

보청기